

FKI ISSUE PAPER

2005. 6. 7 (제 22 호)

2005년 하반기 기업경영환경 전망 - 600대 기업 실태조사 결과 -

목 차

I. 조사결과 요약	1
II. 조사내용	2

I 조사결과 요약

□ 조사개요

- 조사방법 : 自記式 설문지 조사
- 조사기간 : 2005. 5. 20 ~ 2005. 5. 30
- 조사대상 : 매출액 상위 600사(434개사 응답)

□ 경기전망 및 경영계획

- 응답기업의 47%가 하반기 중 국내경기가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. 40%는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
- 그러나, 경기의 본격적 회복시점은 금년 4/4분기 이후(81%)에나 도래할 것으로 전망
- 기업의 과반수(62%)는 경영목표를 조정하기보다 연초에 세운 경영계획을 하반기에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응답
- 기업들은 하반기 중점 경영전략으로 ‘경영내실화(51%)’ 등 안정에 무게를 두는 내실위주의 전략 채택

□ 경제변수 및 정책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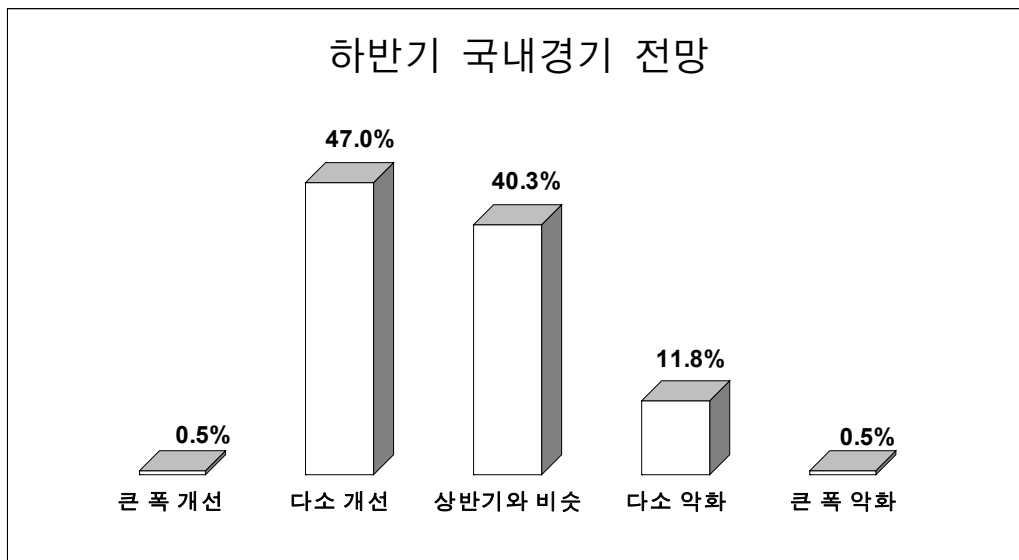
- 하반기 국내경제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적 변수로는 ‘환율(32%)’과 ‘내수경기(31%)’를 지적
-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부가 ‘내수회복(46%)’과 ‘환율관리(22%)’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도록 요구
- 한편, 기업들은 하반기 중 平均換率 平均油價 수준을 각각 1,000~1,025원/\$, 40~45\$/b로 안정적으로 전망

II 조사내용

1. 하반기 경기전망 및 경영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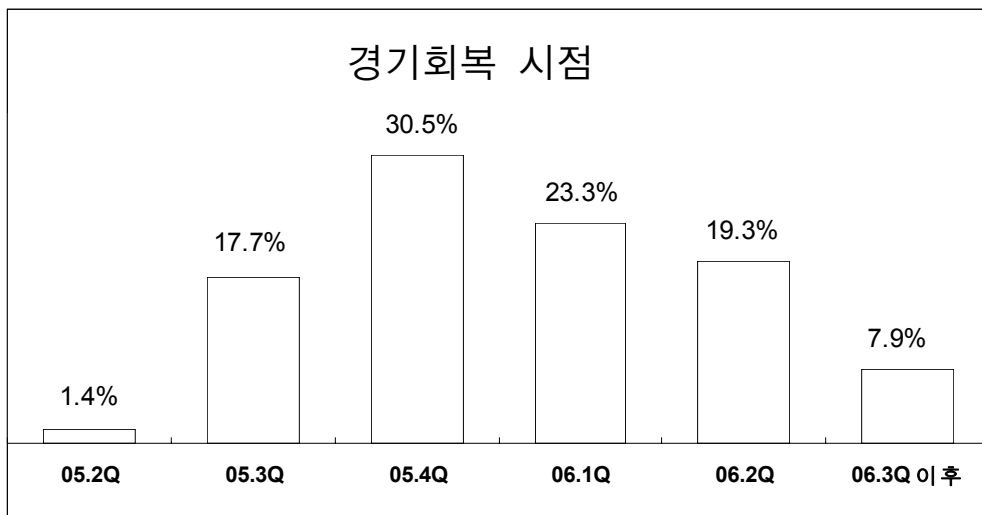
□ 국내경기 전망

- 하반기 중 국내경기 전망에 대해, 침체양상을 보였던 상반기에 비해 ‘다소 개선될 것(47%)’이라는 견해와 ‘상반기와 비슷(40%)’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
 - 그러나, 12%의 기업은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에 비해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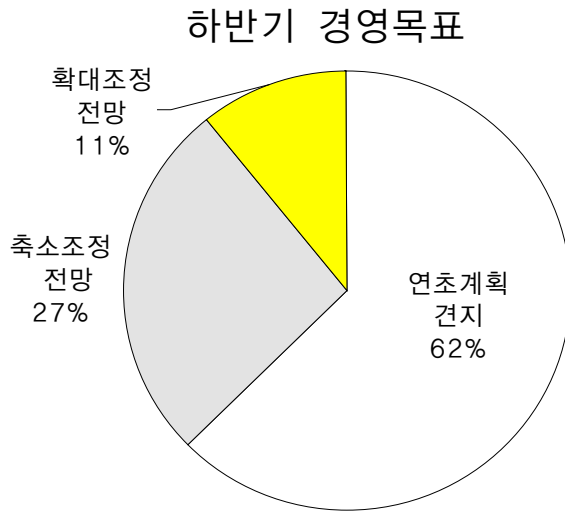
□ 경기회복 시점

- 경기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31%가 '05년 4분기, 23%는 '06년 1분기로 응답하는 등 전체 기업의 80% 이상이 금년 4분기 이후에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한편, 응답기업의 18%는 오는 3분기를 경기회복 시점으로 예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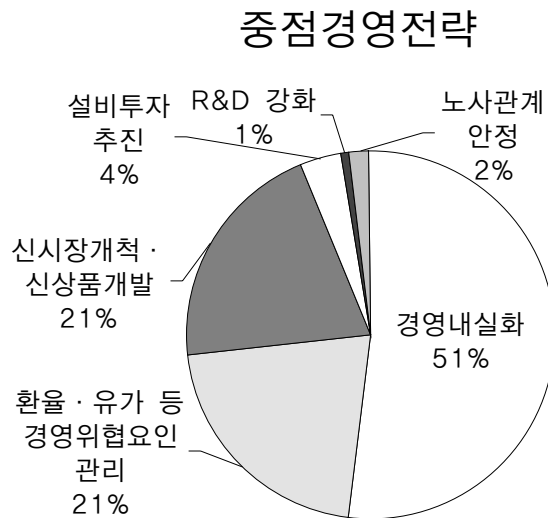
□ 하반기 경영목표 조정 여부

- 국내 기업 62%는 하반기 경영목표를 연초에 수립한 경영계획에 따라 수립
 - 상반기의 침체상황을 반영하여 하반기 경영목표를 축소조정할 계획인 기업도 27%에 상당
 - 반면, 경영목표를 확대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11%에 불과



□ 중점 경영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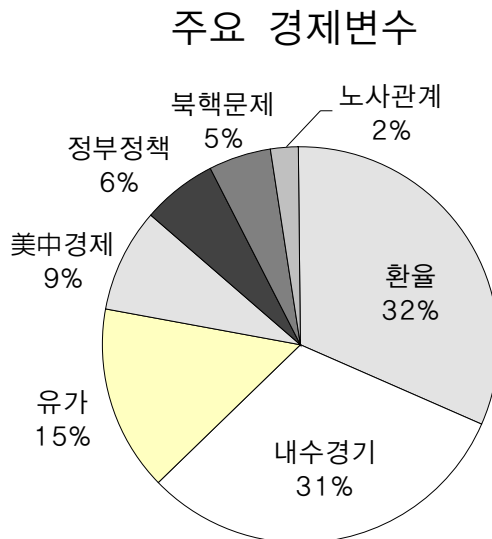
- 본격적 경기회복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중 대다수 기업들은 ‘성장’보다는 ‘안정’에 무게를 둔 내실경영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됨
 - 기업들은 하반기 중점 경영전략으로 ‘신시장 개척(21%)’, ‘설비투자(4%)’ 등의 공격적 전략들보다는 ‘경영내실화(51%)’, ‘환율·유가 등 경영위험요인 관리(21%)’ 등을 채택



2. 하반기 주요 경제변수 및 정책과제

□ 주요 경제변수

- 기업들은 금년 하반기 국내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로 ‘환율(32%)’과 ‘내수경기(31%)’를 지적
 - ‘油價’를 가장 중요한 경제변수로 지적한 기업도 15%에 상당
 - 기타 ‘미국·중국 경제의 향방(9%)’, ‘정부의 경제정책(6%)’, ‘북핵문제(5%)’ 등이 주요 변수로 지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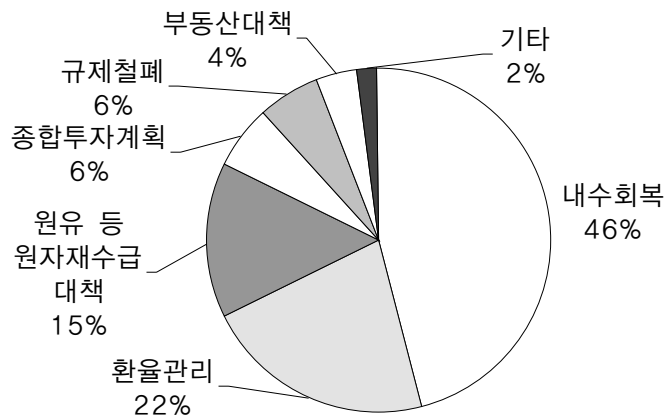


□ 경제정책 중점과제

- 기업들은 ‘내수회복 대책(46%)’과 ‘환율관리(22%)’를 하반기에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지적
 - 반면, 응답기업의 15%는 ‘원유 등 원자재 수급대책’를 지적하였으며 ‘종합투자계획의 실행’과 ‘규제철폐’를 요구한 기업도 각각 6%에 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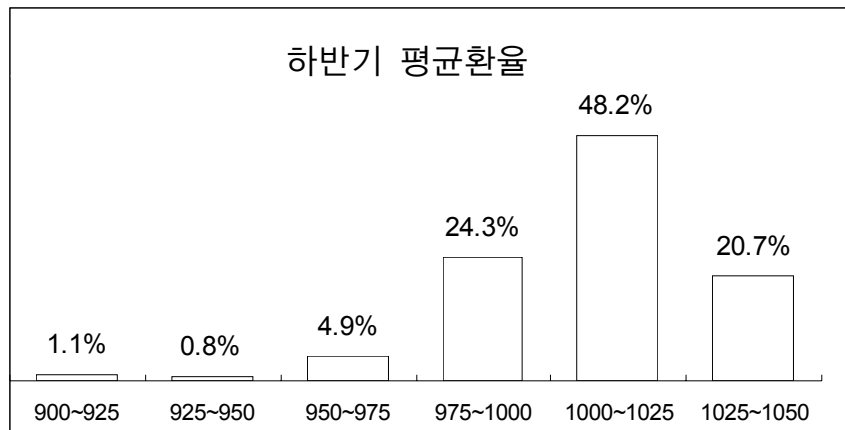
- ‘부동산 대책’을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답한 비율은 4% 수준이고 기타 소수의 기업들이 벤처기업 육성, 통상정책, 중소기업 대책 등을 주요 정책으로 응답

경제정책 중점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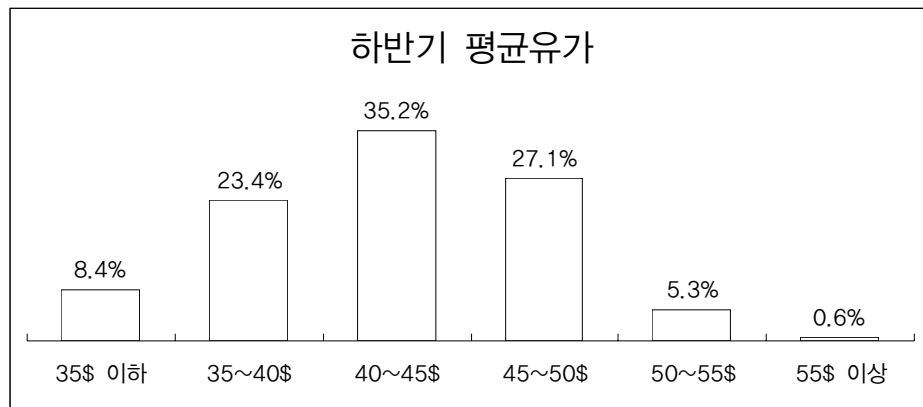


□ 환율 및 油價 전망

- 기업들이 하반기 경영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평균환율은 대체로 ‘1,000~1,025원/\$ (48%)’ 수준으로 현재 환율수준과 비슷해 급격한 환율절상은 예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
- 한편, 24%는 975원~1,000원으로 21%는 1,025~1,050원으로 평균환율 전망



- 유가는 현재 수준보다 다소 낮은 평균 40달러~45달러(두바이油 기준)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(35%)
 - 한편, 평균유가 수준이 45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응답한 업체도 33%에 상당하는 등 高유가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남



이 자료는 본회 경제조사팀 손경숙 차장이 작성한 것입니다. 내용과 관련하여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TEL : 3771-0222 FAX : 6234-5255 E-mail : sks@fki.or.kr